



# 성장세에 접어든 프리미엄 커피시장

방콕사무소

## 도시를 중심으로 한 커피 전문점의 인기

- 미얀마에서 커피는 차(tea)보다 인기가 떨어지지만, 최근 도시 지역에서는 커피가 널리 마시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밖이나 사무실에서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인스턴트커피를 제공한다. 저렴한 인스턴트커피는 길거리 노점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1인용 포장커피도 구입할 수 있다.
- 이렇듯 도시를 중심으로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커피전문점까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주 고객은 외국인이나 관광객 그리고 부유한 미얀마인들이다. 인스턴트커피의 10~20배가량이나 높은 가격 때문이다. 또한, 양곤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외에는 커피 전문매장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은 매장을 방문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인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급 커피전문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관심 증대

- 고급 커피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서는 신선한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커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얀마 정부가 커피를 차기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투자가 늘어난 덕에 커피의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 이러한 흐름에 따라 Genius, Shwe Pa Zun, Shwe Yin Mar과 같은 중소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기농 프리미엄급의 소형커피 브랜드들의 등장도 예상된다.
- 한편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인기로 인해 신선 그라운드 커피® 역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얀마 커피브랜드의 제품 품질과 맛에 대해 논의하고 커피를 추출하는 팁도 공유한다.

1) 그라운드 커피 : 굵게 간 커피



미얀마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종류

- 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수요는 커피숍이나 노점상, 사무실로 한정되는데 미얀마인들은 집에서 보통 프렌치 프레스(Frech Press)<sup>2)</sup>를 통해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

2) 프렌치 프레스(Frech Press) : 가정용 커피 추출 기구, 프랑스에선 카페라테(cafétière)라고도 부른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프리미엄 커피 시장 더욱 확대될 전망**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지난 5월 양곤에 미얀마 첫 매장을 오픈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커피 전문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고품질 신선커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얀마 커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신선한 원두 커피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역시 늘어나 가정에서도 인스턴트가 아닌 신선한 커피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스턴트커피는 앞으로도 그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은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커피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프리미엄 혹은 인스턴트커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과 소득 정도를 면밀히 따져 합리적인 가격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Hot Drink In Myanmar\_Coffee], www.enewko.com, www.facebook.com/geniuscoffeeestate, mingalago.com